

숭대극회 제82회 정기공연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7pm / 24일(금) 7pm / 25일(토) 2pm, 5pm 작 | 시미즈 쿠니오 연출 | 김지영 기획 | 호혜인

장소 |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1층 블루큐브 극장

주최 | 숭대극회 Since 1921

주관 | 숭실대학교

후원 | 동작구 숭대극회 동문회

인사의 말씀



동문회장 85' 이준석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저희 송대극회의 공연 ‘분장실’을 보러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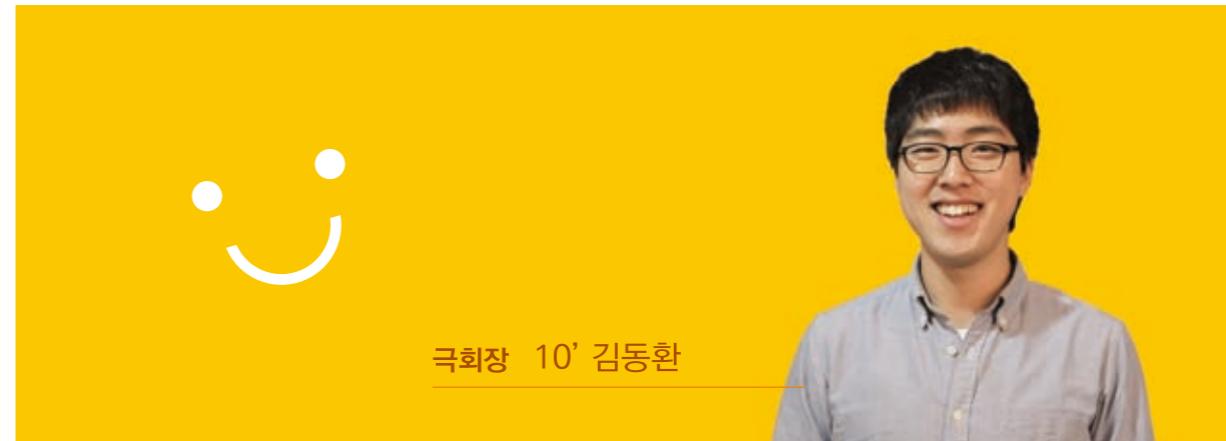
저희 송대극회는 2011년도부터 대학문화를 넘어선 지역문화로의 승화를 위하여 계속 정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하에 2013년도에는 재학생과 졸업동문간의 소통을 통하여 공연관련 매뉴얼화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창단 50주년을 대비하여 송대극회의 역사정립을 위한 디지털 유산화와 더불어 50주년기념 동문합동공연의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자리인 학업과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추운 날씨 간을 끼어 공연을 준비한 저희 송대극회에 부족하나마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다면, 봄의 따사로운 기운처럼 ‘기’를 받아 알찬 ‘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체험과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신 동작구와 학교 관계자님, 바쁜 와중에 신입 극회원 오리엔테이션과 기술멘토링 모임에 참여해주신 동문과 연습과정 중에 찾아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동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저희 송대극회 공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극회장 10' 김동환

장님으로 태어나 개안한 사람의 시선이 되었을 때.

익숙함이 익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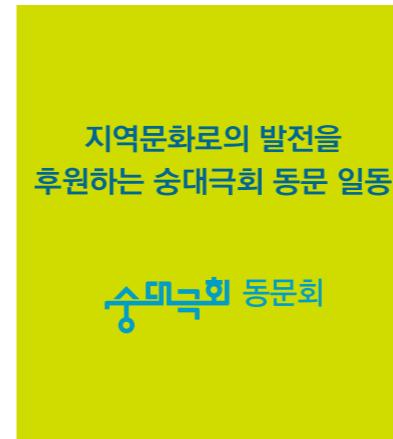
무대 위의 배우는 당연지사.

배우가 머무는 무대와 그 너머의 삶이 진행되는 분장실은 무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삶이 연극으로 보이기도 하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시기의 여러분이 보는 그들은 평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단순한 분장 때문은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기대와 한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언변이 아닌 암묵. 우리는 그 답답함을 깨고나온 다른 사람들입니다.



연출 / 기획의 말



연출
10' 김지영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정말 알짜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극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숭대극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연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연출을 못했더라면
지금 제 마음에 가득 찬 사랑과 사람과, 대담함과
열정과 추억과 이야기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후회 없이 즐겼습니다.
너무 부족한 연출이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7명의 배우들에게 고맙고,
두 달간 청춘의 열정을 쏟아주신 우리 기획님과
끝까지 열심히 해준 조연출 보경이와 스탭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상상하기란 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할 뿐
머리 속에 있는 기발하고 다양한 상상들을 꺼내어
무대위로 옮려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실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머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그 무대 위'로
꺼내어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울고 웃고 감동에 벅차기도 하고
많은 감정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하지 말고 꺼내서 실현해 보라구요
정말 멋진 일이라구요!

ps/ 사람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설리설리 심장 뛰게 해준
우리'분장실'팀! 사랑합니다 ♥.



기획
08' 호혜인

작가소개

시미즈 쿠니오(清水邦夫)

일본 현대 극작가 중 대표적인 작가. 현재 극단 木冬社 대표, 일본 극작가 협회 대표.
그의 작품들은 과거의 기억들, 환상의 어둠에서 사회 현실을 떠오르게 하며, 현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現 모습을 잘 이끌어내는 특징을 갖는 작가로 작품의 문학성이 높게 평가받음.
시미즈 쿠니오의 연극활동은 1960년대 일본 신극(新劇)단 靑俳(seihai)에서 시작.
그 후, 같은 극단원이었던 니나가와 유키오와 함께 극단 현대인극장, 사쿠라샤를 창단, 신주쿠를 거점으로 사회성 짙은 문학 작품을 공연.

그는 1976년, 스스로 모쿠토샤를 창단하고 현재까지 스스로 연출활동을 겸하고 있다. 또 「탱고, 겨울 끝에」 등을 니나가와 유키오가 그의 작품을 영국의 배우들과 같이 연출작업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서도 작품이 올려지고 있다.

작품소개

여배우라고 하는 '생물'의 굉장한 업을 신랄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러움과 애절함이 가득찬 시선으로 그린 시미즈 쿠니오의 걸작

시놉시스

무대에 붙잡힌 7명의 여배우들.

스포트 라이트가 켜지지 않은 분장실이라는 무대에서 오늘도 그녀들은 계속 연기한다...

여배우들은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두고 자존심을 건 신경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7명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벌이는 사건

여배우들은 무대 준비를 위한 화장준비에 여념이 없다. 거기에 주연 여배우와 그녀의 프롬프터를 맡고 있던 젊은 배우가 등장. 젊은 여배우는 "주연을 돌려달라! 나에게도 기회를 줘!"라고 다가서지만...

연출의도

누구에게나 어릴 적 꿈이 있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많이.

나이라는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꿈은 하나, 둘 적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고,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삶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다.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하나의 자리. 분장실의 여배우는 그녀 자신만의 영원한 배역이 있다.
실제 맡은 역이 무엇이 됐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원하는 배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

작품 이해를 위한 글

용어 설명

프롬프터 [prompter]

액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에 등장한 배우가 대사나 동작을 잊었을 때, 대사를 가르쳐주거나 동작을 지시해주는 역.

갈매기

작가.

안톤 체호프

여배우 아르카디나의 아들 트레프레프는 애인 니나를 주역으로 하여 '새로운 형식'의 연극 창조를 꿈꾸는 문학청년이다. 하지만 니나는 아르카디나와 연애 관계에 있는 통속작가 트리고린을 사랑하여 그를 뒤쫓아 모스크바를 떠나는데, 결국은 버림받고 순회극단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시련을 통해 니나는 배우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깨닫고, 굳세게 살아가 기로 결심한다. 한편, 현실과 사회에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트레프레프는, 예술과 생활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절망 끝에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맥베스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코틀랜드의 장군 멕베스는 스코틀랜드 왕 당컨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된다.

암살된 왕의 아들 맬컴은 영국으로 망명하고 귀족들도 스코틀랜드를 떠난다.

멕베스를 왕으로 섬기는 귀족들은 대부분 충성스럽지 못하며 멕베스는 그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암살하고 폭정을 계속한다. 결국에는 망명한 왕자와 귀족들이 영국군의 도움을 얻어 멕베스를 제거한다.

세자마

작가.

안톤 체호프

쁘로조로프가의 세 자매 올가, 마샤, 이리나는 모스크바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성들이지만 아버지의 이직으로 지방 도시로 온 후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모스크바를 동경한다.

맏딸 올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으면서도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마샤는 남편이 있지만 모스크바에서 온 군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막내 이리나는 모스크바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뚜젠바흐와 약혼을 하지만, 뚜젠바흐에게 그녀를 남몰래 사랑하는 솔료늬이가 결투를 신청한다.

세 자매의 형제인 안드레이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속물스러운 부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이윽고 마을에서 군대가 떠나고 세 자매는 사랑과 꿈을 잊지만 다시금 삶에 의지를 되새긴다.

신의 아그네스

작가.

존 필 마이어

갓낳은 아기를 목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이다. 아그네스는 매춘부이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착란 증세가 있는 어머니에게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적 학대와 모멸을 받으며 17살까지 자란다. 그녀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출산을 한 후 아이를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설 처지에 놓인다.

리빙스턴이라는 여의사가 아그네스의 정신상태의 점검하기 위해 초빙된다. 여의사가 아그네스에게 얻어내는 대답과 최면술을 통해 얻은 정보, 그리고 아그네스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인생관·종교관 등 여의사와 수녀원장 사이의 대립으로 진행된다.

배역소개

여배우A 미자 / 30대중반 / 프롬프터
남자배역 전문.
여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여배우B 백희 / 20대중반 / 프롬프터
(갈매기) 니나 역.
가슴아픈 사랑의 상처가 있다.



여배우C 명애 / 40대초반 / 고참배우
현)〈갈매기〉 니나 역.
극단 내에서 많은 경력과
탄탄한 연기력, 명예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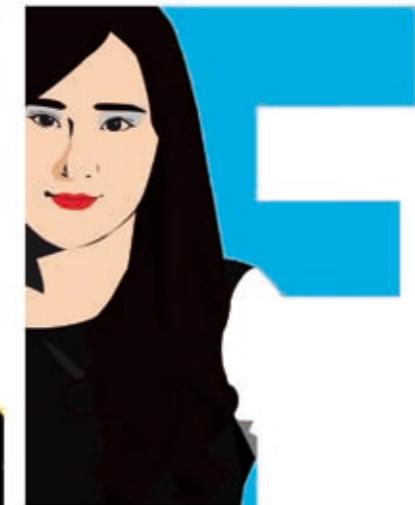
여배우D 윤서 / 20대초반 / 프롬프터
전) 명애의 프롬프터.
한동안 건강악화로
프롬프터 일을 쉬고 있다.



여배우E 라희 / 30대초반 / 프롬프터
(엘렉트라) 엘렉트라 역.
숨기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다.



여배우F 장미 / 20대후반 / 인기배우
현)〈신의 아그네스〉 아그네스 역.
극단대표의 애인이며 최고의 주角을 달리고 있다.



여배우G 옥현 / 20대후반 / 프롬프터
현) 장미의 프롬프터.
공연 중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캐스트 소개

여배우 A
11' 라하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여배우 D
13' 이성미

“외롭게 홀로 핀 꽃 한 송이.
어떤 이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기를.”

여배우 F

13' 김승현

“잊지 못할 나의 첫 작품
분장실 사랑해요 ♥”



여배우 B
13' 김홍주

“힘들어도 얻는 건 너무 많다!!!”



여배우 C
09' 남궁나래

“꽃은 피기위해
얼마나 많은 날의 찬바람을 견디어냈나
이 따뜻한 봄날을 즐기자.

피어있는 순간은 한 때 이지만,
아름답게 만개하여 멋있게 지자.
그리하여 또 다른 나의 봄날을 맞이하자.”



여배우 E

13' 빈미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료는 마음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무는 진정성이기를.”

여배우 G
11' 박예슬

“일이 커졌구나
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다.”



스텝 소개



우리들의 이야기



- 4/12 너무 힘들다ㅠㅠ 이번주는 고난주간이다....



- 4/18 오늘은 트레이닝을 하다말고 벚꽃보러 갔다. 캐스트, 연출님과 더 돋독해졌당. 연출님 사랑해여~♥



- 5/2 동문 선배님의 응원은 힘든 연습 과정 속에서 언제나 든든함을 주신다. 시원한 웃음소리가 베우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주시는 것 같다.



- 5/3 실전처럼 하는 무대연습이 끝나자 웬지모를 벅찬 감동이 밀려왔고 눈물이 났다. 캐스트 모두 평평울며 서로 다독여 줬는데 참 따뜻했던 순간이었다.



- 4/26 사진 촬영이 있는 날~^^ 예쁘고 아름답게 분장실 여배우들 화이팅 !!



- 4/27 신한은행 S20 동아리 지원프로그램 3기 시상식.. 기획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 3/22 졸업동문 선배님과 함께한 신입생 오리테이션 인생 선배로서의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았던 시간이었다.^^



- 4/3 동문 선배님들과 공연관련 기술 멘토스쿨을 가졌습니다.^^



- 너무나 많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



정기 공연 연보

- 1921년 6월 13일 연홍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 1923년 7월 21일 전원극 <우리의 행진> <기개인간> <동백꽃> <십년후> 엠넷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 1965년 11월 제1회 <페공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28일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10일 / 10월 28~29일 제3회 <의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연출
- 1969년 10월 28~29일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연출
- 1970년 5월 15일 제5회 <성자의 삶>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제 연출
- 1970년 10월 28~29일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케트 작, 김양기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종화 연출
- 제7회 <건널목 삼화> 윤조병 작, 주정서 연출
- 제7회 <담배해도에 대하여> 안톤 체kh 작, 한영재 연출
- 제7회 <황금단지> 푸리우터스 작, 유근배 연출
-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4~5일, 11일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연출
- 1972년 5월 25~27일 제9회 <생일 파티> 헤롤드 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21~23일 제10회 <미시시피의 결혼> F.뤼렌마트 작, 고봉인 연출
- 1973년 10월 25~27일 제11회 <방> h.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25~27일 제12회 <정의의 사람들> a.끼위 작, 정종화 연출
- 1975년 6월 9~10일, 12~13일 제13회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기획, 안홍순 연출
- 1975년 10월 29~31일 제14회 <비더만과 병파범>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홍순 연출
- 1976년 6월 1~3일 제15회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태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1976년 10월 25~28일 제16회 <뱀> 장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15~18일 제17회 <EQUUS> 피터쉐퍼 작, 백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10~13일 제18회 <EQUUS> 피터쉐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5~6일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1978년 10월 24일 제20회 <EQUUS> 피터쉐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민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18~19일 제21회 <한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29일, 10월 2일 제22회 <초본> 오태석 작, 이정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5~6일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락 작, 염세범 기획, 박양근 연출
- 1981년 6월 12~13일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1981년 11월 12~14일 제25회 <달맞이 꽃> 김병종 작, 전석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12~13일 제26회 <카리큘러> A.끼위 작, 음태웅 기획, 지숙 연출
- 1982년 10월 7~8일 제27회 <쉐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20~21일 제28회 <미시시피의 결혼> F.뤼렌마트 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7~8일 제29회 <트레버> 존 보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열 연출
- 1984년 5월 24~26일 제30회 <도가니> A.밀러, 이종규 · 염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11~13일 제31회 <변전소> 존 스톤텐버그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9~11일 제32회 <빈민굴> 막심 고르끼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정기 공연 연보

- 1985년 11월 21일, 23일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4~6일 제34회 <EQUUS> 피터쉐퍼 작, 하성무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11~13일 제35회 <코뿔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1987년 6월 3~5일 제36회 <한 여름 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 권형진 · 이준석 기획, 오정열 연출
- 1987년 9월 10~12일 제37회 <오해> A.끼위 작, 오정열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2~4일 제38회 <세 번은 짚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작, 이충일 기획, 오정열 연출
- 1988년 6월 8~10일 제39회 <안내나? 놓내나!>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25~27일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호 연출
- 1989년 10월 10일 / 17~18일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오정열 기획, 이반 연출
- 1990년 5월 24~26일 제42회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30~9월 1일 제43회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4회 <생일파티> H.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희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5회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19~21일 제46회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화 · 정현용 기획, 총영연 연출
- 1992년 9월 17~19일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8회 <세일죽음즈면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9회 <택시택시> 김상수 작, 소장호 · 이명성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5월 26~28일 제50회 <굿 닉타> 날 사이먼 작, 정석용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29~10월 1일 제51회 <안티고네> 스포클래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5년 5월 25~27일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옥 기획, 류성환 연출
- 1995년 11월 26~28일 제53회 <나의라임온지엔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1996년 3월 7~9일 제54회 <자살> 김현목 작, 한석운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5~7일 제55회 <우양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월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충희 연출
- 1997년 3월 13~15일 제56회 <우리 온네> 손蹲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8~9일 / 16일 / 17일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염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1998년 3월 18~20일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26~28일 제59회 <불고기와죽제>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11~13일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2~4일 제61회 <세상 낙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4~6일 제62회 <아름다운 시인> 장진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0년 8월 31~9월 1~2일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극 연출
- 2001년 3월 29~31일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육재 기획, 서정훈 연출
- 2001년 9월 6~8일 제65회 <바라보다 닦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13~15일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피테 작, 김영길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3월 6~8일 제67회 <옥수동에서 암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미나 기획, 윤장한 연출
- 2003년 9월 4~6일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케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3~5일 제69회 <평화의>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혜정 연출
- 2005년 3월 2~4일 제70회 <마술가게>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육재 연출
- 2005년 10월 6~8일 제71회 <허바쿠사> 흥가이 작, 정한길 기획, 한재진 연출
- 2006년 6월 1~3일 제72회 <청춘예찬> 박근영 작, 이고운 기획, 이육재 연출
- 2006년 9월 21~23일 제73회 <사랑에 관한 일곱 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5월 31~6월 2~2일 제74회 <굿 닉타> 날 사이먼 작, 신영준 기획, 한재진 연출
- 2007년 9월 6~8일 제75회 <개교 110주년동문합동>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이준석 · 권형진 · 양현준 · 이명성 · 윤대상 기획, 박경근 연출
- 2008년 11월 27~29일 제76회 <Open Couple> 다리오 포 작, 이보라 기획, 김명희 연출
- 2010년 11월 18~20일 제77회 <일요일의 불청객> 이근삼 작, 김현우 기획, 서동현 연출
- 2011년 5월 26~27일 제78회 <같이, 미치다> 날 사이먼, 서현철, 안톤 체홀 작, 김상현 기획, 김진욱 연출
- 2011년 11월 24~26일 제79회 <신축 학생회관 개관 기념공연> <술집, 돌아오지 않는 햄릿> 위성신 작, 이준석 · 소장호 · 이명성 · 양명호 · 이현중 · 홍창교 기획, 위성신 연출
- 2012년 5월 31~6월 2일 제80회 <카드에 없는 카드> 이경문 작, 임운진 · 조윤재 기획, 이경문 연출
- 2012년 12월 6~8일 제81회 <소팔로비치 유랑극단> 류보미르 시모비치 작, 최한나 · 윤예원 기획, 정성원 연출
- 2013년 5월 23~25일 제82회 <분장실> 시미즈 쿠니오 작, 호혜인 기획, 김지영 연출

신입생 환영 공연 연보

- 1975년 3월 10~12일 제1회 <악마와 틈> W. 에이닝 작, 김홍수 연출
- 1976년 10월 29~31일 제2회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연출
- 1977년 3월 16~18일 제3회 <출발> 윤대상 작, 전경호 기획, 안홍순 연출
- 1979년 3월 29~30일 제4회 <셋> 이강백 작, 한철 기획, 정재호 연출
- 1981년 3월 30~31일 제5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환 기획, 오세한 연출
- 1982년 3월 24~25일 제6회 <입금금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기획, 이용섭 연출
- 1983년 4월 16일 제7회 <블랙 코미디> 블랙 쉐퍼 작, 전희식 기획, 흥려석 연출
- 1984년 3월 8~9일 제8회 <개인의 소공간> 호랄드 작, 차세훈 기획, 김인보 연출
- 1987년 3월 20일 제9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3월 17~19일 제10회 <인형의 집> 헨리 입센 작, 이길영 기획, 김정은 · 위성신 연출
- 1987년 3월 12~14일 제11회 <혹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까워 작, 흥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3월 24~26일 제12회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기획, 황금실 연출
- 1989년 3월 23~25일 제13회 <혹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까워 작, 흥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90년 3월 8~10일 제14회 <우물증 환자> 보토스트로우 작, 이영민 · 안상준 기획, 박세숙 · 백로라 연출
- 1991년 3월 7~9일 제15회 <노크노크> 줄수파이터 작, 정현용 기획, 이범준 연출
- 1992년 5월 28~30일 제16회 <굶고 물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겸 기획, 양현준 연출
- 1993년 3월 11~13일 제17회 <메두사> 조지 케이저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3월 10~12일 제18회 <어린왕자> 생떽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홍석환 연출
- 1995년 3월 9~11일 제19회 <봄 날> 이강백 작, 양명호 기획, 정석용 연출
- 1996년 5월 30~6월 1일 제20회 <울어라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7년 5월 29~31일 제21회 <로불스 대제> 뒤렌마크 작, 박정극 기획, 정석용 연출
- 1998년 6월 5~7일 제22회 <결혼> 이강백 작, 강길호 · 안병진 기획, 류민주 연출
- 1999년 6월 3~5일 제23회 <자매> 라투아니아 작, 흥신태 기획, 권내리 연출
- 2000년 11월 16~18일 제24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포 작, 김명진 기획, 강길호 연출
- 2001년 5월 30~6월 1일 제25회 <노부인의 방문> 뒤렌마크 작, 강혜정 기획, 서정우 연출
- 2003년 5월 29~31일 제26회 <택시드라이벌> 장진 작, 김종백 기획, 한주영 연출
- 2008년 6월 4~7일 제27회 <한여름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 박한경 기획, 이원진 연출
- 2009년 5월 28~30일 제28회 <미미의 집> 정다운 작, 정성원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18~20일 제29회 <웃음의 대학> 미타니 코우키 작, 서동현 기획, 정현승 연출

채플 공연 연보

- 1985년 9월 제1회 <예언자와 목수>, 염세범 기획, 이용섭 연출
- 1986년 10월 제2회 <20세기의 그리스도>, 음태웅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10월 제3회 <공포를 넘어서>, 이영민 기획, 이준석 연출
- 1996년 5월 제4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6년 10월 제5회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명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10월 22~25일 제6회 <칼빈의 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육재 연출
- 2008년 9월 28~10월 2일 제7회 <결혼> 이강백 작, 장한샘 기획, 김성훈 연출
- 2009년 9월 28~10월 1일 제8회 <헤파이스토스의 춤> 정다운 작, 정한길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10월 25~28일 제9회 <다섯 번째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2년 10월 29~11월 1일 제10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 포 작, 원종진 기획, 오광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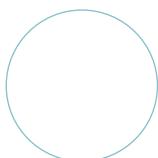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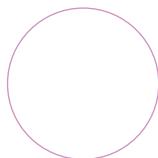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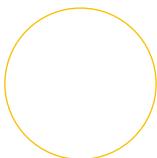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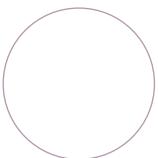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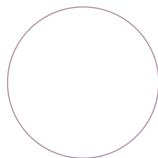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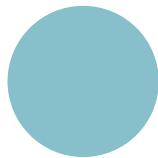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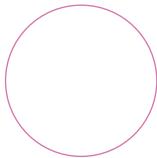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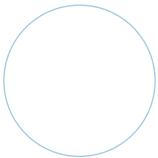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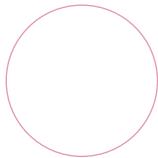
워크샵 공연 연보

- 1991년 10월 7일 워크샵 공연 (왕) 이준석 작, 남재우 기획, 이준석 연출
- 2010년 6월 5일 워크샵 공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피테 작, <가출소녀 우주여행기> 김지용 작, 유병기 기획, 김윤배, 서동현, 김진욱 연출

수대극회
Since 1921
1921년 ~ 1923년
평양 숭실대학교

1965년 11월
서울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창단 공연
<페공으로 돌아오다> 소설가 황석영 작,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2015년 50th
2015년
in Seoul



분장실

송대극회 제82회 정기공연

